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신문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The Periodic Trend of Newspaper Reports Regarding Disabled Children

동신초등학교
교사 홍용신
고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천희영

Dongsin Elementary School
Teacher : Hong, Yong-Shin
Dep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Professor : Chun, Hui-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content analysis for the periodic trend of newspapers regarding disabled children in the 1960s (1961, 1962), 1980s (1981, 1982) and 2000s (2001, 2002), at intervals of 20 years with the Year of World Disabled People (1981) as the basic poi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was increasing. Topics such as 'medical rehabilitation' or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emphasized in the 1960s, 'the environment for social awareness' in the 1980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nvironment for social awareness' in the 2000s. As for the types of disability, general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sight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 and other disabilities were covered, but the range of coverage was not comprehensive. The framing pattern followed the trend of the times, with marginal framing on the decline and diverse framing on the rise. The tones of the articles were positive on the whole.

주제어(Key Words): 장애아동(disabled children), 신문 보도 경향(trend of newspaper report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1. 서론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1974년 '장애인 권리선언' 결의,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지정, '제2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지정' 등 세계 각국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전환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고 2001년, 2002년 일부 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편견이나 차별이 많이 남아 있어 열린 소통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의식적 차원에서 복지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이중은, 1999).

우리 사회를 구획지우지 않고 통합된 열린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시도중 하나가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인데, 일반 대중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은 인쇄매체로서 신뢰성과 권위성을 지니며 사회 계몽성과 지도성이 강하다(윤희중, 1985). 신문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단순히 반영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대중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장애를 바른 방향으로 인식시키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전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만든 사례, 극적 효과나 순간적인 흥미만을 생각하여 보도한 부정적인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서지형, 1994).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식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애아동 및 특수교육 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신문에서의 그 보도 경향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올바른 장애 이해와 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통합, 재활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애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한 관심은 사회 복지학 분야(우정아, 2000)뿐만 아니라 특수교육학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 연구되어져 왔다(변성애, 2003; 서지형, 1994; 유명희, 2000; 함미애, 1998). 서지형(1994)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22년 동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장애 관련 기사의 내용을 장애인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인 것이 교육적 재활과 의료적 재활이었다고 논의하였다. 함미애(1998)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 분석에서 두 신문 모두 특수교육, 의료, 재활공학 등의 주제에서 낮은 빈도를 보여 전인적 재활이란 경제적인 재활외에 심리, 의료, 특수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육적 측면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런 선행연구들은 모두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서지형(1994)과 우정아(2000)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바와 같이 특수교육적 측면에서 '장애아동'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켜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자가 아는 바에 의하면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장애 관련 기사는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의 이동과 관련지어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지어 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므로 더욱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지정이 특수교육사상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고(서지형, 1994), 함미애(1998)의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시기 중심(1977년, 1978년)으로 분석하였던 연구 이후 2001년, 2002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동 관련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 본 연구가 진행된 2003년도는 2000년도 이후 3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대별로 전체 기사를 분석하는데 한계점을 지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된 1981년도를 기준으로 20년 간격으로, 각 시대별 첫 2년간(1961년도, 1962년도/1981년도, 1982년도/2001년도, 2002년도)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수 변화, 기사 내용의 유목별 경향, 다루고 있는 장애 유형, 프레임 방식, 논조 등의 경향을 분석하고 특수교육 패러다임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장애아동 관련 기사 분석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장애아동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에게는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알맞게 통합교육적 측면에서, 일반인에게는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교사, 아동 및 일반인 모두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특수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신문 기사 수는 어떠한가?

둘째,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가 다루고 있는 장애 유형은 어떠한가?

넷째,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프레이밍 방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논조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한국의 주요 신문이고 발행 부수나 독자 확보수라는 기준에 의해서 대표성을 떨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여(조운주, 1988; 서지형, 1994; 함미애, 1998) 장애아동 관련 기사를 1960년대 44건(1961년: 6건, 1962년: 38건), 1980년대 40건(1981년: 29건, 1982년: 11건), 2000년대 281건(2001년: 151건, 2002년 130건), 총 365건을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하나의 기사(item)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정하여, 변성애(2003), 서지형(1994), 우정아(2000), 유명희(2000), 이종은(1999), 함미애(1998)의 연구와 장애인 복지법(2003), 특수교육진흥법(2002)을 참고하여 기사 수, 기사 내용, 장애 유형, 프레이밍 방식, 논조 등의 분석 영역 및 분석 유목, 분석 유목별 세부 항목을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기사의 각 분석 유

<표 1> 분석 영역 및 분석 유목, 세부항목

분석 영역	분 석 유 목	세 부 항 목
기사 수	장애아동 관련, 장애성인 관련	.
기사내용	제도적 환경 물리적 환경 교육적 환경 사회인식적 환경 직업적 재활 의료적 재활 미담 및 봉사 극복 및 성공담 행사 관련 사건 및 사고 외국 사례 기타	장애아동 관련 법안, 입시·입학제도, 복지대책 편의시설, 이동시설, 수용·보호시설 교육권·학습권, 특수교육기관, 통합교육, 장애아동 교육내용, 치료교육, 특수교사·장애아동부모교육, 장애아동보육시설 장애아동 이해, 홍보·계몽, 사회인식적 통합, 장애 현황 및 실태 이해 직업재활기관, 취업·직종 관련(긍정), 취업·직종 관련(부정) 의료 재활, 재활 기구·의료보장구, 장애인인 및 예방·대책 미담, 봉사 관련 장애 극복, 성공담 예체능 행사, 기타 행사 사건, 사고 외국 사례 위의 분석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내용
장애유형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기타장애, 장애총칭	.
프레이밍 방식	인간적 한계 프레임,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기타	.
논 조	긍정, 부정, 기타	.

목별로 중복되어 포함된 경우는 변성애(2003), 서지형(1994), 함미애(1998)의 연구에서 시사받은대로 해당기사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기사 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성인 관련 기사와 장애아동 관련 기사로 구분하였는데, 그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으로 정하였다. 내용 분석 유목 선정은 전반적인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분석 대상이 장애아동에 국한되며 20년간의 시대적 차이로 인하여 표집 기사 건수에 차이가 많아서 분석 항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야 했다. 따라서 <표 1>과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소 세부적으로 선정, 분석하였다. 장애 유형은 특수교육진흥법(2002)과 장애인복지법(2003)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애 유형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장애 총칭'에 포함시켰다. 프레이밍 방식은 이종은(1999)이 제시한 장애에 대한 개념 모델을 참고하여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외에 '기타' 유목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기사내용의 논조는 변성애

(2003), 우정아(2000), 유명희(2000)의 연구를 토대로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긍정', '부정' 외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절차 및 자료 처리

인터넷상에 구축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와 부산 소재 P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에서 장애, 장애아동, 장애인, 특수교육 등을 검색어로 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분석항목의 내용을 조정하였고, 본 조사는 신뢰도 분석을 한 후 전체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분석자간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친 후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는데, 0.9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결과 분석은 SPSS 11.5를 사용하여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 수 변화, 기사 내용, 장애 유형, 프레이밍 방식, 논조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카이검증으로 처리한 후,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보도 경향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2> 프레이밍 방식의 분석 유목 및 정의

프레이밍방식 유목	정 의
인간적 한계 프레임	'장애'를 인간의 존재를 제약하고 한계를 부여하는 요인으로서 정의하고 부각시키며,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고 일반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평가함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로 정의하고 부각시키며, 정체성을 지닌,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 주체로 평가함
기 타	한계 프레임이나 다양성 프레임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경우

<표 3> 기사내용의 논조 분석 유목 및 정의

논조유목	정 의
긍 정	주제별 내용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장애아동이 정상화된 생활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게재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나 관련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내용
부 정	주제별 내용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정상화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회가 감소되거나 박탈되는 내용,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흉터거리로 다룬 기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내용
기 타	위의 두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순한 안내만을 했을 경우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장애아동 관련 기사 수의 분석

장애아동 관련 기사 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사와 대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장애아동 관련 기사 수는 1960년대에 44건(77.2%), 1980년대에는 40건(36.4%), 2000년대에는 281건(22.7%)으로 빈도수는 급증하였으나 장애인 관련 기사와의 상대적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대별 장애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사의 빈도(%)

시대	대상	장애아동	장애인	계
1960년대		44(77.2)	13(22.8)	57(100)
1980년대		40(36.4)	70(63.6)	110(100)
2000년대		281(22.7)	955(77.3)	1236(100)
계		365(26.0)	1038(74.0)	1403(100)

2.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

1) 분석 유목별 내용 분석

내용 분석 유목에 의거한 기사 빈도 경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의료적

<표 5> 시대별 · 분석유목별 빈도(%)

분석 유목	시대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계
	제도적 환경	1(2.3)	4(10.0)	14(5.0)	19(5.2)
물리적 환경	2(4.5)	0(0)	14(5.0)	16(4.4)	
교육적 환경	10(22.7)	4(10.0)	71(25.3)	85(23.3)	
사회인식적 환경	2(4.5)	15(37.5)	44(15.7)	61(16.7)	
직업적 재활	0(0)	1(2.5)	3(1.1)	4(1.1)	
의료적 재활	20(45.5)	4(10.0)	31(11.0)	55(15.1)	
미담 및 봉사	1(2.3)	4(10.0)	20(7.1)	25(6.8)	
극복 및 성공담	1(2.3)	2(5.0)	35(12.5)	38(10.4)	
행사 관련	1(2.3)	1(2.5)	24(8.5)	26(7.1)	
사건 및 사고	4(9.1)	3(7.5)	10(3.6)	17(4.6)	
외국 사례	1(2.3)	1(2.5)	5(1.8)	7(1.9)	
기 타	1(2.3)	1(2.5)	10(3.6)	12(3.3)	
계		44(100)	40(100)	281(100)	365(100)

재활' (45.5%), '교육적 환경' (22.7%), '사건 및 사고' (9.1%) 등의 순서로, 1980년대에는 '사회인식적 환경' (37.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제도적 환경' (10.0%), '교육적 환경' (10.0%), '의료적 재활' (10.0%), '미담 및 봉사' (10.0%)는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교육적 환경' (25.3%), '사회인식적 환경' (15.7%), '장애극복 및 성공담' (12.5%), '의료적 재활' (1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장애인 관련 기사에 비해 장애아동 관련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반영하듯, 장애 원인이나 예방, 대책 등 '의료적 재활' 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장애 유형에 알맞은 교육 내용 소개 및 홍보 중심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세계장애인의 해' 지정으로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홍보·계몽하는 '사회인식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가 많았으며 그의 '제도적 환경'이나 '교육적 환경', '의료적 재활' 등의 다양한 유목으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교육적 환경'이 매우 강조되었고 '사회인식적 환경'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198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그 관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 세부 항목별 내용 분석

각 유목의 세부 항목별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1) 제도적 환경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장애아동 관련 법안에 대한 기사가 1건(2.3%), 1980년대에는 장애아동의 입시, 입학제도와 관련된 기사가 2건(5.0%), 2000년대에는 복지대책이 6건(2.1%), 입시·입학제도와 관련된 기사가 5건(1.8%)이었다. 1980년대에는 지체부자유아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이 허가되지 않아 문제가 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2000년대에는 법적 소송이나 인권위 제소 등으로 입학이 허가되거나 시각장애학생의 대학 수

〈표 6〉 시대별·세부 항목별 빈도(%)

세부항목	시대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제도적 환경	장애아동 관련법안 입시·입학제도 복지대책	1(2.3) 0(0) 0(0)	1(2.5) 2(5.0) 1(2.5)	3(1.1) 5(1.8) 6(2.1)		
	소 계	1(2.3)	4(10.0)	14(5.0)		
	물리적 환경	편의시설 이동시설 수용·보호시설	0(0) 0(0) 2(4.5)	0(0) 0(0) 0(0)	12(4.3) 0(0) 2(0.7)	
		소 계	2(4.5)	0(0)	14(5.0)	
교육적 환경		교육권·학습권 특수교육기관 통합교육 장애아동 교육내용 치료교육 특수교사·장애아동부모교육 장애아동보육시설	1(2.3) 8(18.2) 0(0) 1(2.3) 0(0) 0(0) 0(0)	0(0) 2(5.0) 0(0) 0(0) 1(2.5) 1(2.5) 0(0)	21(7.5) 19(6.8) 14(5.0) 6(2.1) 4(1.4) 5(1.8) 2(0.7)	
		소 계	10(22.7)	4(10.0)	71(25.3)	
	사회인식적 환경	장애아동 이해 홍보·계몽 사회인식적 통합 현황 및 실태 이해	1(2.3) 0(0) 0(0) 1(2.3)	9(22.5) 2(5.0) 3(7.5) 1(2.5)	10(3.6) 12(4.3) 20(7.1) 2(0.7)	
		소 계	2(4.5)	15(37.5)	44(15.7)	
		직업적 재활	직업재활기관 취업·직종 관련(긍정) 취업·직종 관련(부정)	0(0) 0(0) 0(0)	0(0) 0(0) 1(2.5)	1(0.4) 2(0.7) 0(0)
			소 계	0(0)	1(2.5)	3(1.1)
			의료적 재활	의료재활 재활기구·의료보장구 장애원인 및 예방·대책	7(15.9) 1(2.3) 12(27.3)	1(2.5) 0(0) 3(7.5)
	소 계			20(45.5)	4(10.0)	31(11.0)
미담 및 봉사	미담, 봉사관련	1(2.3)		4(10.0)	20(7.1)	
극복 및 성공담	장애 극복, 성공담	1(2.3)		2(5.0)	35(12.5)	
행사 관련	예체능행사 기타행사	0(0) 1(2.3)	1(2.5) 0(0)	8(2.8) 16(5.7)		
	소 계	1(2.3)	1(2.5)	24(8.5)		
	사건 및 사고	사건, 사고	4(9.1)	3(7.5)	10(3.6)	
외국사례	외국사례	1(2.3)	1(2.5)	5(1.8)		
기 타	기 타	1(2.3)	1(2.5)	10(3.6)		
계		44(100)	40(100)	281(100)		

석입학 사례,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대책 관련 등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2) 물리적 환경

1960년대에는 장애아동 수용·보호 시설에 대한 소개가 2건(4.5%) 이루어졌는데, 1980년대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000년대에는 다소 객관적인 어조로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시설 개조, 전용시설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전자도서나 점자 가이드북, 점자영어사전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이나 설비 등 장애유형에 알맞은 물리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사가 12건(4.3%) 소개되었다.

(3) 교육적 환경

장애아동 관련 기사중 가장 중요한 유목이 '교육적 환경'으로,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화유치원 개원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센터의 설립을 촉구하는 기사 등 특수교육기관 관련 기사가 8건(18.2%) 소개되었다. 장애 유형에 알맞은 기구의 설치와 특수학교 설립, 각급 학교에 특수반 설치, 특기반을 두어 특수 기술을 연마하고 저능아의 특수지도와 취미의 계발을 꾀할 것을 역설하였다.

1980년대에는 총 4건(10%) 정도로 1960년대나 2000년대에 비해 장애아동 교육 관련 기사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언어·청각장애자 임상센터가 설립되어 언어 및 청각장애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특수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입학 등을 막고 있는 각종 관련 법령을 없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실은 기사나 유네스코 보고서를 인용하여 신체 장애자 교육은 통합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1981년도 연말을 즈음하여 장애 관련 정책을 돌이켜 반성하는 논고에서는 제시된 계획에 비해 행정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장애 실태 파악조차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학습권 관련 기사가 21건(7.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장애아동 유치원에서부터 장애인 전문대학의 개교 등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기관과 관련된 기사가 19건(6.8%) 게재되었고, 장애아동 특별교육과정 개설, 정보화 교육 등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가정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종합 복지관, 타교육기관의 사례나

'통합교육 도우미' 배치 사례, 뇌성마비,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치료 사례, 다양한 교육 방법이나 치료교육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또 장애 유형의 하나인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개념 소개 및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합교육 관련이 14건(5.0%), 특수아를 지도하는 교사나 장애아동 부모회의 결성 및 그들을 위한 교육 방안 탐색과 관련된 기사가 5건(1.8%) 보도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의 범위가 장애아동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특수교사가 부족한 특정 시·도의 상황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수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학부모가 '교육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거듭하는 사례나 장애아동의 학교 교육 불만과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교교육 및 사설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한 기사도 발견되었다.

(4) 사회인식적 환경

사회인식적 환경 관련 기사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60년대에는 일반시민이나 정상아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거나 장애별 인원수 및 비율 관련 기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1980년대에는 '장애아동 이해' 관련 기사가 9건(22.5%)으로 증가되었고, 세계 장애인의 해 지정이나 장애인의 날 등을 계기로 '사회인식적 통합' 관련 기사가 3건(7.5%) 보도되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00년대에도 20건(7.1%) 게재되었고 1980년대의 장애아동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식이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KBS나 EBS 방송에서의 장애아동 소개 및 홍보·계몽 사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아동 이해를 촉구하는 기사가 게재되어 사회인식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0건, 3.6%).

(5) 직업적 재활

장애성인에게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먼이 직

업적 재할인 것과는 달리 장애아동의 경우는 다소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분야였는데, 1960년대에는 관련 기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1980년대에는 취업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1건(2.5%), 2000년대에는 직업 재활기관 소개가 1건(0.4%), 취업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2건(0.7%) 소개되었으며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기 위한 각종 연수나 교육을 받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6) 의료적 재활

1960년대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목이 '의료적 재활'(20건, 45.5%)로, 장애 원인과 예방, 대책 등과 관련된 기사가 1960년대에는 12건(27.3%), 1980년대에는 3건(7.5%), 2000년대에는 21건(7.5%)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에는 소아마비나 왁신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었고 1980년대에는 소아마비가 거의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정박아의 출현이 거의 부모의 부주의 탓이라는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언어장애'나 '자폐증'의 증상을 소개하거나 3세 미만의 어린이도 장애 여부를 진단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장애의 원인이나 예방, 대책 등이 소개되었다. 2000년대에는 장애 유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언어장애, 저시력, 틱장애, 분리·불안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학습장애, 정신병에 대한 이해, 중독증, 반응성 애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거나 예방, 대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7) 미담 및 봉사

장애·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돕는 '미담 및 봉사' 관련 유목의 경우 1960년대에는 1건(2.3%), 1980년대에 4건(10%), 2000년대에 20건(7.1%)으로 나타났는데, 기사의 건수는 계속 증가되었으나 비율적으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급내에 있는 장애아동을 잘 보살피 주거나 봉사했던 기사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사 분석에서는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8) 극복 및 성공담

장애성인 관련 기사 분석에서는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목이 '극복 및 성공담'이었으나, 장애아동의 경우는 1960년대에 1건(2.3%), 1980년대에 2건(5.0%), 2000년대에는 35건(12.5%) 정도였으며 계속 증가되는 추세였다. 장애학생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학생에 선발되었거나 정신지체 장애아동이 철인경기에 도전하는 사례, 가야금이나 기능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 청각장애학생들의 야구팀 창단 사례 등 극복을 다룬 기사가 소개되었다.

(9) 행사

1960년대에는 '기타 행사'가 1건(2.3%), 1980년대에는 '예체능 행사'가 1건(2.5%), 2000년대에는 '예체능 행사'가 8건(2.8%), '기타행사'가 16건(5.7%)으로, 총 24건(8.5%) 소개되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였다. 장애인 올림픽 이후 예체능 행사가 급증하였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 관련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나 비장애아동의 장애 체험, 장애학교와 비장애학교간의 답을 허무는 파담 행사 등 사회통합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행사도 전개되었다.

(10) 사건 및 사고

사건·사고는 1960년대에는 4건(9.1%), 1980년대에 3건(7.5%), 2000년대에는 10건(3.6%) 다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장애를 비판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1980년대, 2000년대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심으로 게재되었다.

(11) 외국사례

장애아동에 대한 외국의 사건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가 1960년대에 1건(2.3%), 1980년대에 1건(2.5%), 2000년대에는 5건(1.8%)으로 비율적으로 모두 2% 안팎이었다. 1960년대에는 장애아동 출산과 관련된 미국의 사건이 보도되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의 자폐증에 대한 시각을 보고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12) 기타

1960년대나 1980년대에는 이상의 분석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사가 각각 1건 다루어졌으나 2000년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10건(3.6%) 다루어졌다. 장애 여아와 관련된 기사, 장애아동의 해외 입양 및 국내 입양에 대한 비교, 장애아동을 소재로 다룬 책의 출판, 장애 관련 단체 소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3. 장애 유형별 분석

장애 유형은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21건, 47.7%) 장애 총칭(9건, 20.5%), 시각장애(6건, 13.6%), 청각장애(5건, 11.4%) 등의 순서였다. 1980년대에는 장애 총칭이 21건(52.5%), 지체장애가 8건(20.0%), 기타장애가 4건(10.0%) 등의 순서로, 2000년대에는 장애 총칭이 131건(46.6%), 지체장애가 54건(19.2%), 시각장애가 30건(10.7%) 등의 순서였다. 각 시대별로 장애 총칭외에 많이 다루고 있는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였고 2000년대에 장애 유형의 범주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언어장애나 정서장애, 학습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소개와 관련기사가 게재되었다.

<표 7> 시대별·장애 유형별 빈도(%)

장애유형\시대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지체장애	21(47.7)	8(20.0)	54(19.2)
시각장애	6(13.6)	2(5.0)	30(10.7)
청각장애	5(11.4)	1(2.5)	20(7.1)
정신지체	2(4.5)	2(5.0)	17(6.0)
언어장애	0(0)	1(2.5)	3(1.1)
정서장애	0(0)	0(0)	9(3.2)
학습장애	0(0)	1(2.5)	6(2.1)
기타장애	1(2.3)	4(10.0)	11(4.0)
장애 총칭	9(20.5)	21(52.5)	131(46.6)
계	44(100)	40(100)	281(100)

4.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프레이밍 방식 분석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프레이밍 방식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카이검증 결과, 시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인간적 한계성 프레이밍 방식으로 다룬 것이 25건(56.8%)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19건(47.5%)으로 감소하였다.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은 15건(37.5%)이던 것이 2000년대에는 143건(50.9%)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인간적 한계성 프레이밍 방식의 비율은 감소하고 인간적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표 8> 시대별 장애아동 프레이밍 방식 빈도(%) 및 카이검증 결과

시대\프레이밍 방식	인간적 한계성 프레이밍	인간적 다양성 프레이밍	기 타	χ^2
1960년대	25(56.8)	3(6.8)	16(36.4)	35.7***
1980년대	19(47.5)	15(37.5)	6(15.0)	
2000년대	84(26.3)	143(50.9)	64(22.8)	
계	118(32.3)	161(44.1)	86(23.6)	

***p<.001

5.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논조 분석

기사의 논조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긍정적 논조가 20건(45.5%)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25건(62.5%), 2000년대에는 190건(67.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표 9>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논조 빈도(%) 및 카이검증 결과

시대\논조	긍정적	부정적	기 타	χ^2
1960년대	20(45.5)	16(36.4)	8(18.2)	20.5***
1980년대	25(62.5)	11(27.5)	4(10.0)	
2000년대	190(67.6)	35(12.5)	56(19.9)	
계	235(64.4)	62(17.0)	68(18.6)	

***p<.001

긍정적인 논조가 부정적인 논조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의 첫 2년간 한국의 주요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장애아동 관련 기사를 기사 수, 기사 내용의 유목별 경향, 다루고 있는 장애 유형, 프레이밍 방식, 논조 등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기사 수는 1960년대, 1980년대에는 비슷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증하였는데, 기사 수의 증가 경향은 장애인 전체를 다루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변성애, 2003; 서지형, 1994; 우정아, 2000; 유명희, 2000; 함미애, 1998). 196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아동 관련 기사비율이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장애아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1980년대에는 장애성인이나 장애인 전체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둘째, 분석 유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1960년대에는 '장애'를 학생 개인의 병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적 재활'이 많이 강조되었고, '교육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1980년대에는 '세계장애인의 해', '장애인의 날' 지정으로 장애아동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장애성인이나 장애인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사회인식적 환경' 조성을 일깨우는 기사가 폭넓게 보도되는 경향이였다. 2000년대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통합된 '교육적 환경'을 강조하고 있어 1960년대의 분리된 교육적 환경과는 의미가 다른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논의해 보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 관련 기사는 그다지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교육적 환경' 측면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장애아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부분이라는 인식을 강하

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고, 1980년대에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이 미약하나마 제시되고 있었는데, 함미애(1998)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토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인터넷이나 정보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사례는 장애성인 관련 기사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앞으로의 방향은 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것으로 시사받을 수 있었다. 류은경(1999)이 학교 교육을 양적인 운영체제에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강조하는 질적인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듯이 교육적 환경은 변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확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통합된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적응을 위한 노력(이지수, 2002)에 대한 보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육적 환경' 부분에서 통합교육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사회인식적 환경' 부분에서도 1980년대부터 장애아동 현황이나 실태 보고, 이해 촉구 및 홍보, 계몽하는 기사가 증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학교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적 통합과 관련된 사례나 촉구 위주의 기사가 광범위하게 분석되었다.

장애성인 관련 기사 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직업적 재활'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환교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최중옥, 박희찬, 김건희, 2002) '행사' 분야에서 예체능 행사 외에 인터넷이나 정보관련 대회 등 다양한 행사 분야로의 접근은 우정아(2000)가 언급했던 다각적인 행사 보도의 필요성이 실현되고 있는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시거나 행사에만 치중하는 일회적인 보도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지적할 수 있었다.

'의료적 재활'의 경우, 1960년대에는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많이 다루어져 당시 '장애'의 유형을 지체장애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1980년대나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의료적 재활에 대한 보도 비율이 낮아져 10%대를 유지하였으나 장애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에게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미담 및 봉사’와 ‘장애 극복 및 성공담’ 관련 기사에서는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돕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며 ‘극복’, ‘성공’이라는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아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함미애(1998)는 ‘미담, 극복’ 보도 기사가 자칫 장애인을 희생이나 봉사의 대상으로 혹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미화하거나 흥밋거리 기사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외국 사례’는 1960년대에는 사건 중심으로, 1980년대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통합 교육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가졌던 관심보다는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원리나 법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좋은 선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루고 있는 장애 유형들은 장애 총칭외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많았고 특정장애에만 치우쳐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1960년대 장애 현황 기사에서는 목발을 짚고 있는 아동 그림이나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지체 장애가 많이 다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기타 장애에 포함되는 장애 유형에 대해 일부 소개되어졌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가되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체장애 외에 정서장애나 언어장애 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도 소개하되, 보다 신중하고 정선된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사실이었다(함미애, 1998; 변성애, 2003).

넷째, 장애아동에 대한 시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계적인 프레이밍 방식에서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장애 관련 미디어 프레이밍 방식이 인간적 한계 프레이밍 방식보다는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일 때 더욱 감정이입이 잘 되고 편견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식을 가진다는 이종은(1999)의 연구 결과에서 시

사받듯이 장애아동 관련 프레이밍 방식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아동 관련 기사의 논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아(2000)가 장애인 관련 법 제정이나 행사 이후 장애인의 사회 생활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기사 보도가 증가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시각이 한계적인 인간으로 보던 것으로부터 다양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려는 견해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 분석, 장애 유형, 프레이밍 방식, 논조의 분석 결과는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지어 고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시대별 분석 유목에서의 변화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1960년대의 ‘개인적 병리’로 여기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1980년대의 ‘교육 병리’나 ‘사회 병리’로 보려는 거시적 시각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2000년대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구에서의 패러다임 이동에 비하면 늦은 편이기는 하나 사회 또는 학교가 개인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한다는 류은경(1999)의 견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개념’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활 중심’ 시각으로 확대해 나갔다는 송명욱(1993)의 견해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인 보도 경향의 증가 추세나 인간적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으로의 전환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장애아동의 ‘교육’ 및 ‘사회통합적 인식’과 관련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문제시되는 부정적인 사례들도 여전히 보고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인식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신문 보도 경향에 대한 본 연구는 기사 표집 연도와 신문 종류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전체 신문의 경향이라고 단

정짓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교육적, 사회인식적 환경의 조성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 문제에 대하여 신문의 보도적, 지도적, 평균적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일반인에게는 장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하며 관련기관의 시책을 촉구하는 등 재활이나 사회통합적으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사에게는 중재, 통합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특수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일반적 인식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수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위영, 정대영(2002). 학습장애아동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 김윤옥(2003). 포스트모던 교육의 이해와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특수아동교육연구, 5(2), 19-34.
- 김정권, 채미옥 외 역(2003).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서울: 특수교육.
- 김정권, 한현민(2002).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특수교육.
- 김정권, 한현민 외 역(2003). 민주주의와 특수교육. 서울: 특수교육.
- 김종현, 윤치연, 이근매, 이성현, 이은림(2003). 특수아동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 나은경(1998). 뉴스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태도 및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데이터 베이스 신문기사. <http://www.donga.com>. 1961-1962년/1981-1982년/2001-2002년.
- 류은경(1999). 특수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TQM 적용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3(2), 173-192.
- 변성애(2003). 신문의 장애 보도 경향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형(1994). 주요 일간신문의 장애인 관련 기사 분석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아(2000). 신문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희(2000). 신문의 장애관련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중(1985). 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성 문제. 신문학보, 19.
- 이성현(2001). 특수교육의 이해와 지도. 서울: 글로벌.
- 이종은(1999). 장애인 문제에 관한 미디어 프레이밍이 감정이입, 편견의 감소 및 문제 해결 동기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수(2002).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지적 학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1998). '98장애인에 대한 매스컴 핸드북. 서울: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 정영석(1989). 신문의 교육관계기사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데이터 베이스 신문기사. <http://db.chosun.com>. 1961-1962년/1981-1982년/2001-2002년.
- 조운주(1988). 유아교육관계 기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중옥, 박희찬, 김건희(2002). 정신지체아교육. 서울: 양서원.
- 한국특수아동학회(2003). 통합교육 장에서의 학습·행동장애아동 지도방법. 부산대학교 2003년 동계 부산특수교육 직무연수교재.
- 함미애(1998). 한국신문의 장애에 대한 보도 경향 연구 -1977년~1997년까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신, 천희영(2004). 신문의 장애 관련 보도에 관한 학위논문의 내용분석. 아동연구, 13, 51-63.

- Bogdan, R. & Knoll, J. (1988). *The sociology of disability*. In E. L. Meyen & T. M. Skrtic(Eds.),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An introduction* (pp. 449-477). Denver, C.: Love Publishing.
- Burrell, G. & Morgan, G.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 Haller, B. (1997). *Images of disability in news media :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83rd), Chicago, IL, November, 19-23.
- Lawrence, P. R. & Lorsch, J. W. (1967).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Managing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Bost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 Morgan, G. (1986). *Images of organization*. Beverly Hills, CA: Sage.
- Schneider, A.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 Skrtic, T. M. (1986). The crisis in special education knowledge: A prespective on perspective.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18(7), 1-16.
- UNESCO (1989). *Handbook an community awareness programmes concerning disability : UNESCO for Asia and Pacific*, Bangkok, U.N., New York, UNESCO.

(2004년 12월 29일 접수, 2005년 3월 9일 채택)